

빛을 활용한 감성 패션디자인 연구

A study on Emotional Fashion Design Using Light

조민영, 최경희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ABSTRACT

현대 패션분야에서 디자이너들의 예술적 표현의 주제이자 매체로서 활용되고 있는 빛은 보다 감성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되는 추세로서, 빛을 활용한 감성 패션디자인에 대한 표현 방법과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패션디자인에서 빛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빛의 반사, 이미지 표현, 발광, 투사에 의해 독창적으로 응용되어져 표현되어 왔으며, 다양한 빛의 표현을 위해 재료의 물성을 조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빛의 유희, 명암이나 형태, 색채를 통한 빛의 재현, 발광물질이나 인공광에 의한 발광, 프로젝터를 통한 빛 이미지 등 다양한 표현방법이 활용되고 있었다.

빛이 활용된 감성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으로는 상호작용성, 영상성, 투명성, 실험성으로 분류되었다. 상호작용성은 착용자의 행위에 의한 변형과 신체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에 의한 불빛이나 영상 패턴이 바뀌는 등 형태나 컬러, 영상의 변형 등 착용자의 메시지 전달이나, 감정표현, 신체보호, 그리고 재미를 유발하는 효과를 자아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성은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것과 내부 광원에 의한 발광성으로 분류되며, 드레스에 장착된 수많은 LED 에 의한 영상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표현된 영상성은 심미적인 효과가 우선시되었다. 투명성은 주로 비닐, 플라스틱, 기능적 소재 등 투명한 소재들을 이용하여 대부분 재료의 특성이 조형적 특성으로 분석되었고, 외부와의 개방성과 위장가능성의 효과를 준다거나, 투명한 재질에 이미지가 변화하는 이미지의 중첩성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실험성은 새로운 실험적 도구로서의 패션을 표현하고자 할 때, '빛'을 매개체로 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재미를 더해주며, 신비주의적 환상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빛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은 빛을 매개체로 하여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특유의 조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eyword: 'light', 'emotional fashion design', 'sensitivity'

1. 서론

빛의 효과 또는 테크놀로지에 의한 빛의 구현은 20세기 이후 빛의 예술을 생성시켰으며,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된 빛은 시·공간성을 만들어내고 예술가들의 창작행위를 다양하게 한다. 또한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독창적인 조형공간의 확대와 예술의 사회화라는 현대 후기 조형미학의 특성을 표출하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감성을 중시하는 소비가 일반화되면서 이미지와 미적 감성을 중요시하는 문화, 생활의 감성화와 패션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의 한가지로 현대 패션분야에서는 디자이너나 작가의 예술적 표현의 주제이자 매체로서 빛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빛의 반영을 중요시하는 패션경향은 빛을 활용한 패션 상품이나 각종 전시회, 패션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더욱이 지능화된 패션에서 비가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테크놀로지를 시각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빛은 최근 패션디자인에서 보다 감성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는 타분야에 비해서 빛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고, 감성과 패션의 조형이란 범주에서 그 관련성을 밝히거나 서로의 연관성을 접목한 연구 또한 부족하다. 빛에 대한 패션분야의 연구들도 주로 예술적인 표현을 강조한 아트 패션 분야에서 적용되어져 일반 생활영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며,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감성 분야와 패션이 접목된 연구는 더욱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0년 이후에 나타난 빛을 활용한 감성 패션디자인의 표현방법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빛을 활용한 패션 및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된 연구에 방향을

제시하고, 그와 연관된 분야의 대표적 연구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빛을 활용한 감성 패션디자인에 대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범위로는 빛을 활용한 감성 패션디자인이 주로 나타난 2000년 이후부터 2009년 현재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빛을 활용한 감성 패션디자인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디자인 분야의 저서, TV·신문·잡지의 언론매체, 인터넷 사이트, 연구 보고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이론적 내용을 정립하고, 문헌 및 시각자료를 분석하여 빛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각 표현방법과 조형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빛을 활용한 감성 패션디자인의 표현방법

빛을 활용한 감성 패션디자인으로 다양한 빛의 표현을 위해 재료의 물성을 조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빛의 유희, 명암이나 형태, 색채를 통한 빛의 재현, 발광물질이나 인공광에 의한 발광, 프로젝터를 통한 빛 이미지 등 다양한 표현방법이 활용되고 있었다.

패션디자인에서의 빛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빛의 반사, 이미지 표현, 발광, 투사에 의해 독창적으로 응용되어져 표현되어 왔으며, 이를 분석의 틀로 하여 빛이 활용된 감성 패션디자인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빛의 반사에 의한 감성 패션디자인은 외부 반사광이 의복 소재나 장식재료의 물성과 결합되어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나타내는 변화무쌍한 반짝임 등의 효과를 활용한 것으로 주로 메탈릭, 크리스탈린, 홀로그램 소재 등이

많이 사용되어져 매혹적인 시각 효과를 창출하였다.

둘째, 빛의 이미지 표현에 의한 감성 패션디자인은 빛의 재현된 문양으로서 형상화되어 활용되고 있었으며,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움직임, 활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빛의 투사에 의한 영상 이미지가 활용되었다. 구체적 표현방법에는 표현의 다양성과 장식성을 위해 태양, 우주, 광선 등의 신비로운 요소로 장식적 의미를 표현하였고, 기계적 속성과 속도감을 재현하는 요소로서 미래주의, 옵아트, 사이키델릭 아트를 차용한 의복에 주로 사용되어져 예술적 표현과 결합된 환각적인 시각 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빛의 발광에 의한 감성 패션디자인은 형광, 인광, 화학발광 등의 비전기적 발광물질이나 LED, 레이저, 광섬유 등의 전기적 발광장치를 접목시켜 의복 내부에 존재하는 광원에서 방출하는 빛의 효과를 활용하였다. 이는 환상적인 분위기와 함께 점차적으로 빛의 테크놀로지가 텍스타일 테크놀로지에 비가시적으로 결합되어져 빛이 주요한 조형요소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시각화시키는 수단으로 표현되는 감성지향적인 특성을 보였다.

넷째, 빛의 투사에 의한 감성 패션디자인은 컴퓨터에 의한 투사된 의복이 마치 하나의 스크린처럼 기능하도록 한 영상 이미지나 입체 홀로그래피 아트의 형식을 차용하여 가상적인 조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과거 패션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로서 빛을 도구로 하는 매체에 의해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패션디자인의 새로운 개념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3.2. 빛을 활용한 감성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빛을 활용한 감성 패션디자인의 표현방법을 분석해 본 결과, 빛이 활용된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징으로는 상호작용성, 영상성, 투명성, 실험성으로 구분되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감성 패션디자인이 인간의 몸에 착용된다는 점과 색채, 소재, 실루엣의 조화를 통해 그의 조형성이 형성된다고 판단될 때, 빛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표현방법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들은 일반적인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보다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상호작용성은 의도하는 디자인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와 그의 패션을 착용하는 착용자, 이를 감상하는 관람자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와 차원의 상호교류가 가능함을 뜻한다. 예전에는 착용자가 의복을 착용하고 활동하며 만족하는 역할을 하였고, 관람자는 디자이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던 존재의 역할만을 하였다면, 감성 패션디자인이 발전한 현대에는 착용자, 관람자, 디자이너가 서로 상호적 참여자로서의 역할로 확대된 것이다. 빛을 활용한 감성 패션디자인에서는 착용자의 신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각적, 심리적 차원의 반응까지도 감성 패션디자인의 요소와 다른 요소들과의 복합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성의 구체적인 표현방법의 조형적 특성으로는 착용자의 행위에 의한 변형과 신체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에 의한 불빛이나 영상 패턴이 바뀌는 등 형태나 컬러, 영상의 변형 등 착용자의 메시지 전달이나, 감정표현, 신체보호, 그리고 재미를 유발하는 효과를 자아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상성은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것과 내부 광원에 의한 발광성으로 분류가 된다. 드레스에 장착된 수많은 LED 에 의한 영상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표현된 영상성은 심미적인 효과가 우선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의 궁극적 기능인 시각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서의 ‘빛’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한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표현방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감성이 중시되는 시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투명성은 주로 비닐, 플라스틱, 기능적 소재 등 투명한 소재들을 이용하여 대부분 재료의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조형적 특성으로 분석되어진다. 이와 같은 특성은 외부와의 개방성과 위장가능성의 효과를 준다거나, 투명한 재질에 이미지가 변화하는 이미지의 중첩성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재질의 비치는 특성은 다양한 감성과 감정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재질에 따른 특성이 디자인을 시각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넷째, 실험성은 일상적 판타지와 자극을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을 바탕에 두고 패션디자인에 감성을 극대화해서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현대인들에게 포토닉 텍스타일이나 메탈 패브릭(Metal Fabric) 같은 실험적 소재를 통한 실험적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단순히 평범하게 입고 생활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패션이 아니라 새로운 실험적 도구로서의 패션을 표현하고자 할 때, '빛'을 매개체로 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재미를 더해주며, 신비주의적 환상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4. 결론

패션디자인의 조형과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빛이 활용된 감성 패션디자인의 표현방법과 그들의 조형적 특성을 파악해 본 결과, 빛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은 빛을 매개체로 하여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특유의 조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간의 감성을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빛을 활용한 감성 패션디자인이 다양화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일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회 각 분야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시도의

패션디자인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특성들을 잘 활용하여 각 분야의 디자이너와 기술자와의 협업을 통해 통합 디자인으로 발전하는데 패션 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향후 빛을 활용한 패션상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디자인 분야의 실무에서도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더불어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빛을 활용한 표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하는 기술과 다양한 소재와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감성 패션디자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 더욱 다양한 감성 패션디자인의 개발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유진, 이경희 (2003). 패션에 나타난 감성과 감정의 조형적 특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1), 34-44
- [2] 서성은 (2002). 빛에 나타난 빛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11
- [3] 이현영 (2007). 디지털 미디어 아트의 영상 표현에 관한 연구 -"미디어 시티 서울 2006" 출품작을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회 지. 10(2), 57-62
- [4] 정현 (2008). 빛이 활용된 패션디자인의 조형성.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33.
- [5] 제갈미 (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미디어 아트의 표현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7
- [6] Suzanne Lee (2004). FASHIONING THE FUTURE-Tomorrow's Wardrobe. Thames&Hudson(London), 7-99